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인터넷신문 344-2211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음 11월 23일) 제17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농식품 R&D지원센터 운영효과 '톡톡'

### 중앙부처 R&D 공모 17건 선정 국비 177억 유치 내년엔 곤충산업화·쌀 수급안정 기술개발 등 추진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이 농생명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농식품 R&D지원센터 운영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20일 생진원은 도내 농식품 관련 기업 및 대학교, 지자체연구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농식품 R&D지원센터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농식품 R&D지원센터'의 2016년도 주요 활동, 전북도 농식품산업 지원사업 주요실적과 최근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에 맞춘 2017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올해에도 농식품 R&D 지원센터를 통해 식품관련 중앙부처 R&D 공모과제를 통해 17건이 선정돼 국비 177억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한국형 장 건강 프로젝트 등 전통식품화 연구, 국내산 농산물 원료 가공기술 연구, 쌀가루 품질지표 개발 등 쌀 소비촉진 연구를 포함해 다양한 과제가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도출됐다"고 말했다.

'농식품 R&D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전북도의 풍부한 농식품 연구 인프라와 도내 영세한 식품기업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난 2013년에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다.

생진원은 중심으로 도내 5개 지자체 연구소 등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농식품분야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또는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안하고 유치해 도내 영세한 식품기업

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기술력을 강화시켜주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생진원은 2016년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농식품 R&D지원센터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곤충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쌀 수급안정을 위한 기술개발, 국내농산물을 활용한 수출전략상품개발, 지역자원 수출활성화 장애기술 개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등의 연구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 R&D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생진원은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등 비R&D 18개 사업 총 사업비 72억원을 수주해 도내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지원했다.

특히 진흥원내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자원의 상품개발로 25개사를 지원해 20억원의 직접매출 성과를 달성했고,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총사업비 16억원, 마케팅 활동 지원비 7억3,500만원을 지원해 총 148억여원의 계약 및 판매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원기업 중 해외까지 판로를 확장한 신규 수출기업이 38.2% 증가해 총 49개 기업이 수출실적을 이뤘다.

창업보육에 있어 진흥원 입주기업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예상 매출액은 345억원, 고용인력 279명으로 전년도 매출규모 대비 약15%, 고용은 약 6% 정도 성장했다.

입주기업 활동으로는 신제품 개발 42건, 인증 및 특허관련 28건, 판로개척 34건, 기술지원 14건 외 대내외 수상 6건 등의 지원성과를 이뤘다.



“현미로 만든 새알심” 동짓날을 하루 앞둔 20일 전주시 중화산동 옥목동 팔죽집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유색 발아현미로 만든 새알심을 선보이고 있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가공식품 수출이 20% 증가하면 국내 농업에 17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국가 연구사업을 통해 확보된 농산물 원료공기기술의 고도화로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삼락농정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주거·노동·양육이 뒤따라야”

### 민주당 도당-도의회, 청년정책 지역사회 공존 토론회

청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노동·양육 정책 등과의 유기적 연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에서 '청년정책 지역사회와 공존하기'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재우 교수(전북대)와 강용구 도의원(남원2)이 각각 '청년과 지역사회, 그리고 행복', '전북 청년 기본조례안' 등의 주제로 발표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서남이 전주시 의원은 "체계적인 정책, 그리고 생태계를 바꿔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기간의 성과에 의존하기 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 이어 "청년이 신뢰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초기 지원 단계-돌봄단계-정착단계 등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하 평화재단 청년포럼 전 부대표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문제 중 하나는 정작 직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라며 "지역의 많은 일자리를 우선 선별해 경험시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두는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도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량강화지원실장은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의무교육, 일자리 차별 해소 등을 당론으로 정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전북청년 기본조례안이 실효성이 가질 수 있도록 협력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도 “이제 외부 차입금 없다”

### 농협서 빌린 693억원 상환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줄어

전북도가 외부 차입금 제로(0)화를 달성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부 차입금(정부자금·은행) 상환 잔액 중 농협에서 빌린 693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해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300억원에 달했던 외부 차입금을 민선6기 3년만에 전액 상환한 것이다.

이로써 도민 1인당 채무액도 38만 6000원으로 지난해 말(42만3000원)보다 3만7000원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채무 조기상환 등을 통해 332억원의 이자부담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17개 시·도 중 지난해 채무 제로화를 선언한 경남과 함께 외부 차입금이 없는 다섯번째 시·도(전북, 경기, 경남, 충남, 충북)가 됐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전북도는 채무 건전성 제고를 재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해왔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3년간 345억원을 조기상환했다.

지난해에는 은행과의 협상 등을 통해 고금리 지방채의 이자를 저금리로 조정해 500억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기준금리 인하(1.5%→1.25%)로 1.4%(1년 정기에)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기금 등의 유유자금을 이번 조기상환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 외부 차입금 제로화를 달성했다.

외부 차입금이 제로화됨에 따라 전북도의 지방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모든 시도가 의무적으로 채권을 발행(자동차 신규등록 등) 하는 지역개발공채 상환금만 남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채무상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아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확산되는 AI... 전주동물원, 오늘부터 임시 휴장

전주동물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임시휴장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최근 국내 AI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서울대공원에서 AI 양성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AI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1일부터 상향 종료 시까지 전주동물원을 임시 휴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이 임시 휴장한 것은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유행했던 지난

2011년 1월~3월까지, 전미동 백석저수지에서 철새 AI 확산판정을 받았던 지난 2014년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 국내에서는 지난달 18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가 최초로 검출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국 7개 시·도, 26개 시·군(162농가)에 AI가 확산되는 등 전국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됐다.

또한, 그간 청정지대로 여겨왔던 동물원 중 하나인 서울대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인 황새2마리의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전주동물원도 AI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휴장기로 결정했다. 이는 동물원 인근 3km 반경 내(보호지역)에 AI 발생시 임시휴장하도록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 전주동물원 내부 방역 지침 보다 한 단계 강화된 예방조치다. /김영재 기자

이와 관련, 전주동물원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총 103종 611마리로, 이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대상 동물은 6개 동물사 46종 211마리에 달한다.

전주동물원은 현재 AI차단방역을 위해 국내 AI 최초발생일 이후부터 이틀에 1회 이상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수의사가 매일 2회 이상 모든 사육조류에 대한 정밀 예방과 진료를 실시해왔다.

동물원은 임시 휴장 후에는 전체 동물사를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등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 세계희귀절지동물 특별전

2016 겨울방학 특별기획

2016년 12월 24일(토) ~ 1월 22일(일) \*월요일 휴관

장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시간 오전10시 ~ 오후5시

주소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 ☎ 063) 620-5751~5754